

# 상공자원부 · NCC“ 힘겨루기”

## 폴리머가격 인상싸고 마찰 ... 5%감산 정부입장 "오락가락"

5% 감산방안 및 국제가 상승을 근거로 한 NCC기업의 폴리머 가격인상 시도가 상공부의 노골적인 불만표시로 무산되는 등 험란한 행로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상공부가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영적자 누적에 따른 해소방안을 업계 자율적 의사에 맡긴이후 처음 가격인상 시도였다는 점에서 관련부처와 기업간 마찰로 인한 그 후유증이 상당히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NCC업계는 업계의 감산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상공자원부의 내부입장에 따라 지난 3월 「폴리올레핀 시장질서 유지 대책안」을 합의한데 이어 3월에는 LDPE · HDPE · PP등 공급과잉이 심한 폴리머를 중심으로 10%에서 20%의 가격인상을 4월1일자로 수요업계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PP필름 시장의 경우, PP가격을 톤당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10% 인상하는 등 대부분의 NCC기업이 각 기업별로 해당 수요처에 10~20% 인상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 수요기업에서는 「국제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긴 하지만 수요시장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화되지도 않을 5%감산을 이유로 기습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공부에 철회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상공부는 형식적으로는 물가안정과 담합을, 실질적으로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인상을 통보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급기야 통보방침이 전해진 3월말에는NCC사장단을 두차례나 불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인상방침이 무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당초 상공부가 사전합의만 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감산합의후 국제가격을 고려, 가격인상을 통보했는데도 이제와서 물가 및 사전협의를 없앴다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킨다는 것은 정책의지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된 근본이유는 무엇보다 협회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이해될 수 있는 실질적인 5% 감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상공부의 협조만을 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눈가림식의 형식적인 감산안에 그친데서 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5% 감산안과 폴리머 가격인상 통보에 따른 문제는 상공부의 공식 입장이 유보되고 있는 가운데 「담합이나」 「국제가에 연동하려는 기업의 자구책이나」를 놓고 상공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등 새로운 양상으로 전체 석유화학 업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5/9>